

“세팍타크로 불모지 한계 딛고 도약 기틀 다질 것”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광주 세팍타크로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겠습니다.”

최근 송원대학교 다목적체육관에서 만난 여성구 광주세팍타크로협회 회장(대양산업 대표이사)은 “세팍타크로는 그야말로 비인기 종목이다. 전국체전·아시아인계임 등의 정식 종목임에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그간 협회와 팀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모지의 한계를 극복, 지역의 전락 종목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팍타크로는 말레이시아어인 ‘세팍(발로차다)’과 태국어인 ‘타크로(불)’의 합성어로, 15세기 동남아 궁정경기로 시작된 스포츠다. 발과 머리를 활용, 발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채 3번의 터치로 네트를 넘겨야 한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아인계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00년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등록됐다.

여성구 회장은 세팍타크로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지인의 추천으로부터 시작됐다. 2021년 당시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주영 전 회장의 제안이 계기였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가 ‘광주는 세팍타크로 불모지다. 함께 종목을 알리자’고 여 회장을 설득했다. 하지만 체육계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여 회장은 이를 섣불리 수락하기 어려웠다. 오 전 회장은 이후 김동재 송원대 교수, 안민주 동신대 교수와의 만남까지 주선하며 오래전 창립 후 사라졌던 광주세팍타크로협회를 재창립하자는 의견을 냈다. 여 회장은 결국 마

체육가맹단체를 찾아서 여성구 광주세팍타크로협회 회장

통합 제1대 협회 창립...남·여 대학팀 창단 이끌어 학교·실업팀 확보 등 연계육성 시스템 구축 과제 구체육회 협회 활성화...회원단체 승격 역점 추진

음을 돌렸다. 광주에 새로운 종목을 정착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 체육계 발전에도 뜻을 품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협회 창립을 다짐하게 됐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24일 광주 라마다프라자호텔 4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협회가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뿐이었다. 이날은 전국에서 16번째로 세팍타크로협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통합 제1대 광주세팍타크로협회 회장으로 추대된 여성구 회장은 “협회 발전은 물론 세팍타크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대학팀 진학, 실업팀 입단, 국제대회 입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취임 이후 그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먼저 재정지원이 열악한 종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진을 꾸렸다. 이들과 함께 심시일만 협회 운영자금을 마련한 뒤에는 선수 발굴과 지도자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전국에서 열리는 세팍타크로 대회를 다녔고, 지도자와 선수들 영입에 몰두했다. 그 결과 2022년 4월에는 광주의 첫 세팍타크로팀이 탄생했다. 송원대학교 남자

세팍타크로팀이 창단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린 것.

여 회장과 임원진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팀은 곧바로 성과를 냈다.

창단 6개월 만에 출전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세팍타크로 남자일반부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세팍타크로 불모지 광주에서 나온 첫 전국체전 메달이다.

창단 1년이 지난 뒤에는 처음으로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는 영예도 안았다.

여 회장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광주세팍타크로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해 연임을 도전했다. 통합 제2대 광주세팍타크로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고, 2025년 1월 11일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됐다.

종목 저변확대에 주력한 여 회장은 그

해 3월 광주여대 여자 세팍타크로팀 창단까지 이끌었다. 김성은 광주여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 또한 확보했지만, 예산 문제로 지도자를 구하지는 못했다.

이에 광주여대는 손민준 송원대 세팍타크로팀 지도자의 도움으로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지난해 제107회 전국체전에서 ‘강호’ 한국체대를 16강에서 2-0으로 제압, 메달을 따진 못했으나 창단 첫해



여성구 광주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은 “세팍타크로는 그야말로 비인기 종목이다. 이러한 불모지의 한계를 극복, 지역의 전락 종목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의미 있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듯 광주세팍타크로는 협회 창립에 이어 남·여 대학팀 창단까지 많은 발전을 이뤘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 회장은 남은 임기 기간 광주가 세팍

타크로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가장 먼저 집중하고 있는 건 지도자 문제다.

여 회장은 “현재 광주에는 세팍타크로 지도자가 단 1명뿐이다. 광주여대팀은

현재 지도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시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업팀과 학교팀 창단 또한 임기 내 가장 큰 과제다.

여 회장은 “실업팀이 먼저 만들어진다면 진로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학교팀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며 “초·중·고-대-실업팀 인재육성 시스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세팍타크로의 회원단체 승격 역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주세팍타크로 협회는 인정단체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식 회원단체가 아닌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앞서 송원대는 창단 첫해 전국체전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기도 했다. 광주여대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성과에도 인정단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 회장은 “다른 지역은 세팍타크로가 아시아인계임 정식종목이기에 준회원단체부터 시작했다”면서 “광주는 시체육회 규정에 묶여 인정단체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임원 및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치구 협회 한 곳이 있어야 준회원이 되고, 두 곳 이상의 자치구 협회가 있어야지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현재 이 규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면서 “준회원 이상만 되더라도 후원자를 받고, MOU를 체결해 선수들한테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31일 열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오스트리아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이 슛을 하고 있다. 맹보

홍명보호, 모의고사 끝...스리백 안착·손흥민 부활 과제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한 8교시짜리 실전 모의고사를 모두 마쳤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유럽 원정으로 A매치 2연전을 치러 코트다부아르에 0-4, 오스트리아에 0-1로 졌다.

이로써 월드컵 본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치른 8차례 평가전에서 4승 1무 3패의 성적을 냈다.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성적이다. 16강까지 오른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대표팀은 본선 전 7차례 평가전에서 4승 2무 1패를 거뒀다.

홍명보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스리백 전술을 가다듬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본선을 2개월 앞둔 현재 홍명보호의 스리백 전술이 본선에서 경쟁력을 보일 정도로 완성도를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A매치 2연전 0-4·0-1...8차례 평가전서 4승 1무 3패 성적 본선 경쟁력 ‘물음표’...미국·멕시코 3주 훈련서 다듬어

여기에 더해 홍명보호는 득점력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10년 넘게 대표팀 공격을 책임진 박세철의 영웅 손흥민의 득점포가 울해 들어 치갑게 식었다.

지난해 상반기 아시아 최종예선을 6승 4무 무패의 성적으로 마치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대업을 달성한 홍명

보호는 이후 6월 동아시아컵에서 국내와 선수들을 테스트했다. 해외파까지 소집할 수 있는 A매치 기간 평가전을 소화하며 본선 경쟁력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이 8경기 중 7경기에서 홍 감독은 중앙 수비수로 3명을 배치하는 스리백 전술을 시험했다.

9월 미국 원정 2연전에서 홍명보호는 1승 1무의 좋은 성적을 냈다. 미국에 2-0

으로 이겼고, 멕시코와는 2-2로 비겼다.

그러면서 스리백은 홍명보호의 ‘플랜 A’로 굳어졌다. 그러나 월드컵 최종 소집 전 마지막으로 치른 올해 2연전에서 전패하며 홍명보호를 둘러싼 우려는 커졌다. 코트다부아르와 경기에서는 4점 차로 참패했다.

지금까지 보여준 홍명보호 스리백 전술은, 매우 ‘고전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현대 축구에서 스리백 전술은 공격 시 센터백들이 능동적으로 공격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홍 감독이 의도적으로 과거 지향의 스리백을 사용하는 건 아니다. 홍 감독 역시 보다 다채롭게 공격하고 유기적으로 수비하는 스리백을 추구한다. 홍 감독은 적어도 오스트리아전에서는

수비진이 어느 정도는 ‘현대적 스리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리백에 매우 부정적인 외부 시각과 다르게, 당사자인 선수들은 운도 차는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민재는 오스트리아전 뒤 “오늘 같은 자세로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홍명보호의 스리백 완성도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시전캠프부터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 스켄프 훈련까지, 홍명보호가 스리백을 가다듬는 시간은 3주가 넘는다. 대표팀은 한두 차례 평가전을 가질 수도 있다.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해결 안 될 문제가 있다. 두 경기 모두에서 손흥민은 작년처럼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손흥민이 ‘라스트 댄스’가 될 수 있는 무대에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해 주기를 한국 축구는 바라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회, 밀라노 패럴림픽 방민자 격려

휠체어컬링 혼성 4인조 4위 한전 KDN서 150만원 전달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제76차 기자회견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휠체어컬링 방민자(혼성 4인조·세계랭킹 5위)를 격려하고 지정기탁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한전KDN이 방민자의 경기력 향상과 안정적인 훈련을 응원하기 위해 지정기탁한 150만원이 전달됐다. 해당 기탁금은 선수의 훈련과 대회 참가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전KDN 소속인 방민자는 2005년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의 권유로 휠체어컬링을 시작해 꾸준히 실력을 키워 왔다.

2011년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후 최근 코리아휠체어컬링리그 우승과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입상



등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대회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방민자를 주축으로 한 휠체어컬링 혼성 4인조 팀은 이번 패럴림픽에서 4위를 기록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기업의 따뜻한 후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체육회도 이러한 응원에 발맞춰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체육회-제주 WE호텔, 체육·관광 협약

전남도체육회가 체육·관광 연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 WE호텔과 손을 맞잡았다.

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제주WE호텔 6층 VIP룸에서 제주 WE호텔과 체육 행사 운영 지원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체육과 관광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전라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연수·워크숍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체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체육행사의 전반적인 완성

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체육행사 참가자 대상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 할인, 합리적인 이용 여건 조성과 서비스 우대, 체육·관광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홍보 및 마케팅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은 체육과 관광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 상생과 체육복지 실현에 더욱 힘써 나 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